

동국제약, 갱년기 극복 프로젝트 '혜라민퀸' 캠페인

원데이 클래스·동행 캠페인·일반인 모델 콘테스트 운영



원데이 클래스 '스푼 컬러 드로잉'

동국제약은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혜라민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갱년기 증상을 방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캠페인은 온·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 동행 캠페인, 모델 콘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한 원데이 클래스는 무드등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플라워 클래스 등 다양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참가자들은 혜라민퀸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전시관에 전시한다.

동행 캠페인은 2013년부터 춘천 남이섬, 서울의 안산 자락길, 남산 순환로, 포천 국립수목원 등에서 진행해왔다. 걷기 같은 가벼운 야외활동과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자연의 정취도 느끼고 중년 여성의 고민과 행복에 관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혜라민퀸 모델 콘테스트는 40~59세 여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일반인 광고 모델 선발 대회다. 중년 여성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동국제약 혜라민퀸 마케팅 담당자는 "캠페인을 통해 중년 여성들에게 삶에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원데이 클래스 등 지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❶